

1학년 시각장애대학생의 대학진학의 의미와 학교생활 경험에 관한 현상학 연구 : 휴학의 기로에서

Phenomenological Research on the Meaning of Visually-impaired Undergraduate
Freshmen's University Entrance and their School Life Experiences:
At a crossroads before taking a leave of absence

최선경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un-Kyoung Choi(sun@silla.ac.kr)

요약

본 연구는 부산시 소재의 S대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치고, 현재 휴학을 고려하고 있는 3명의 시각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3월부터 7월 동안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대학진학의 의미와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와 구조를 탐색 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대학진학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입학 후 학교생활 경험은 무엇인가? 이며, 연구결과 “캠퍼스생활의 설렘과 대학생이라는 이름”, “부모의 권유”, “안마사 말고 다른 무엇”, “누구나 들어가는 곳 인가? 특별한 곳인가?”, “대중 속의 고독”, “모든 것이 장애물”, “포기한건 아니지만 여전히 애매한 시간 속으로”, “또 다시 갈등 시작”, “대학재학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것”. 이라는 10개의 중심주제가 도출되었으며,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 그 의미(범주1), 대학생활 적응과 현실(범주 2), 입학 1년후: 대학 재학의 의미(범주 3)라는 주제로 범주화 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이 시각장애인학생들의 초기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중심어 : | 1학년 시각장애대학생 | 대학진학 | 학교생활경험 | 휴학 | 현상학 연구 |

Abstract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three visually-impaired undergraduates currently considering if they should take a leave of absence after finishing the first year in S University located in Busan City. From March to July, 2018, this researcher explored the meaning of their university entrance and the essential meaning and structure of their school life experiences by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According to the results, this author drew 32 meaningful statements and also 10 main themes, “the excitement of campus life and the name of being an undergraduate”, “parents' suggestion”, “something other than being a massager”, “Is it a place that anyone can enter? Or, is it a special place?”, “loneliness within the public”, “Everything is an obstacle.”, “It's not giving up, but still I am in a vague moment.”, “the beginning of another conflict”, and “studying in a university is not for the present but for the future”. They were categorized into being a university student and the meaning of it (category1),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and reality (category 2), and one year after the entrance: the meaning of being a university student (category 3).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author intends to provide foundational material about what universities can do for visually-impaired students to adapt to university life in the initial steps properly.

■ keyword : | Freshmen with Visual Impairment | Going to University | School Life Experience | Leave of Absence | Phenomenological Research |

1. 서론

장애인에 대한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가 1995년부터 시행되면서 장애대학생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5년도에 대학의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장애학생은 전문대학 5명과 대학교 107명으로 113명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652명으로 약 6배가 증가하였으며, 같은 시기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교 8개 대학에서 99개 대학으로 약 12배 증가하였다[1]. 2015년 현재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졸업생 7,111명 중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한 대학생은 1,113명으로 1995년 본격적인 특례입학 제도 후의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2]. 시각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역시 1995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시험시간의 증가, 맹학생 대상으로 시험지가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제공, 저시력 학생을 위한 확대 문제지가 제공되면서 시각장애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었다[3].

특히,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11년부터 교육기관에도 적용되게 되었고[4], 이로 인해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대학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두 법률의 시행은 장애학생의 대학진입 증가에 바탕을 제공하였고 1995년 시행된 기존의 ‘특수교육대상 특별전형 제도’ 시행 이래 가장 획기적인 장애인 고등교육의 장을 열게 하였다[5].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장애대학생의 교육권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전반의 지원 모색이 시도되고 있다 [6-10].

장애인의 대학진입에 따른 변화된 대학 분위기는 장애대학생의 권리와 기회의 보장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장애대학생의 장애유형이 다양하고, 이에 따른 지원역시 세분화 되지 않으면 그 접근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질적 지원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에 있다.

특히 장애의 유형 중에도 시각장애는 “손상”이 주는

기능장애의 특성으로 대학이라는 새로운 장소에 대한 물리적인 적응과정과 그에 따르는 학업, 관계, 정서 등의 문제와 직면하면서 내적 갈등 및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거치는 등의 복잡한 심리적 과정을 보이기도 한다 [11].

시각장애인의 대학생활적응은 시각상실에 수반되는 경험의 범위와 다양성의 제한성, 보행능력의 제한성,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제한성 등으로 일상생활전반 그리고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여러 가지 주어지는 과제들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의 습득만큼이나 타인의 도움 또한 필수불가결하다[12]. 또한, 적응과정에서 시각장애대학생을 도울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시각장애의 특성 상 학교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시력의 손상과 그로 인한 기능장애, 그에 따르는 사회적 장애로 인해 대인관계에서부터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적 접근권 까지, 낮은 환경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이 수 없이 발생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시각장애대학생의 어려움은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3-15].

따라서 “시력손상”이 주는 기능상의 어려움은 단순히 점자도서나 녹음도서 그리고 확대 문자자료와 낭독봉사 등의 환경지원 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이상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로 확장된다. 그러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종류에 대한 지식과 공유가 많은 부분 부족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대학에 입학하는 동시에 겪게 되는 어려움은 고스란히 장애인 개인의 몫이 된다. 때로는 이에 대한 표면적 결과로서, 휴학이나 학사경고, 자퇴에 이르기기도 한다[11-16] [18].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대학은 입학 후 초기부터 시각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단순히 학업부진으로 인해 휴학과 자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 초기 과정에서 부터 이미 학교생활의 우울과 불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27].

본 연구는 장애학생에게 대학의 첫 이미지라 할 수 있는 신입생 시기부터 대학생활 전반을 타진해 볼 수 있는 1학년의 생활은 매우 중요한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고, 이에 중점을 둔 장애 대학생의 학교생활경험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는 장애의 특성상 물리적, 정서적 적응의 정도가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휴학을 고려하고 있는 1학년의 학교생활 경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Paul과 Wong(1995)는 비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의 초기 사회적 관계형성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대학 입학 후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형성이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형성은 경쟁적이고 새로운 학습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교수나 선배, 학과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적으로 수용되고 존중되고 친밀함을 느끼는 것은 적응의 초기경험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19]. 본 연구가 시각장애 1학년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주목하는 이유도 [19]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 근거한다.

이는 시각장애가 다른 장애보다 중증 장애에 속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학 차원에서, 대학생활적응을 고려한 보다 세밀한 안내와 지지가 지원된다면 시각장애학생의 대학생활 초기 경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학이 시각장애인이 중·고등 과정에서 이수된 안마사 진로를 포기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의미를 파악하고, 입학 후 초기 적응 단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적응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입학 후 1년의 과정을 마치고 2학년으로 진학할 것인지, 휴학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3인을 대상으로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는 현상학적 접근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현상학은 '경험'에 초점을 두어 경험의 의미와 구조, 즉 어떠한 현상의 본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방법이기에 본 연구의 주제와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특히,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참여자의 진술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생생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는 연구방법으로[38], 도출된 구조 속에 범주들 간의 관계를 보여 주어 경험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39].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이 대학에 진학하는 의미의 본질을 파악하고 둘째, 입학 후 1년간의 대학생활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인지된 대학생활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각장애인학생들에게 학습·진로지도·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대학기관이 특히, 중증장애에 속하는 시각장애인학생들의 초기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관련문헌 고찰

지금까지 시각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과 관련한 연구로 최근 5년간의 국내 연구동향을 보면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2편[11][19]과 취업과 진로에 관한 연구 4편[21-24], 대학 내 교육복지 지원과 관련된 연구 1편[14], 사회참여 및 정보접근과 관련된 연구 2편[25][26],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 관계 1편[33]으로 비교적 짧게 요약된다.

조현근(2016)은 시각장애학생은 대학에 진학하여 초기에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대학생활 적응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힘겨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즉, 개인의 정체성 혼란 및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의 부재가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힘겨웠던 또 다른 이유는 특수학교에서 지지와 지원 속에 오랜 시간 생활해 오다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대학생활에 들어오면서 생활양식의 변화 및 과제 형성과 유지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파악하였다. 이는 결국 휴학이나 자퇴, 진공 선택의 후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11]. 또한 교수-학습 지원 미미로 학습부진, 성적미달 등으로 학사경고 횡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일부 대학에서는 비 장애 학생의 6배에 달하는 장애 학생들의 휴학 및 자퇴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13], 학사경고로 인한 휴학이나 자퇴 등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대학생이 약 30%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2][14]. 문제는 이로 인해 불만과 우울을 경

험하기도 한다는 점에 있다[16][17][27].

박영준(2016)은 일부 시각장애 학생들이 안마업 외의 진로로서 사회복지사, 교사, 공무원 등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취업의 문턱이 높아 소수의 시각장애인들만 진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마사라는 직업을 벗어나고 싶은 많은 학생들이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에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을 진학할 때, 시각장애학생들은 '보다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함이었고, 대학 진학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적성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이는, 2009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와 같은 맥락인데, 시각장애고등학생 336명 중 271명(83.21%)의 학생들이 안마업 외의 다른 직종에 대한 계획을 나타내었고 이중 143명(52.8%)이 대학 진학을 선호하고 있어, 대학진학을 원하는 응답자가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진로계획의 배경을 분석하면,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응답자 중에서 98명(69.5%)의 학생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 진학을 원한다고 응답하였다[28].

김미선 외(2013)은 시각장애 대학생들의 입학증가는 그들의 교육적 성취욕구와 연결되어 있고 고학력중심의 사회패러다임의 변화로 정서상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고등교육의 보편화 현상으로 대다수의 학생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고등교육기관에 유입 증가 현상은 대학 진학으로 인한 기회비용이나 대학 학령인구의 감소와는 별도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36]. 주목할 점은 선발이 또 하나의 차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례입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재정비되어야 하고 특례입학이 현행 수준보다 더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 주었다. 특히, 시각장애 대학생들은 특례입학의 확대를 원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원하는 이는 누구든지'로 되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력의 하향평준화가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질 높은 고등교육을 위한 입학제도 및 인적 물적 지원체제 정비에 대한 논의와 국가차원의 교육복지 실행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29].

김미선 외(2013)는 최근 대학교육의 성과와 관계되는

것은 취업이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특수교육대상학생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이들 역시 취업현장에 직면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던 장애대학생의 교수·학습지원 분야를 넘어서서 진학, 진로, 취업 등의 영역으로 지원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학에 진학하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경우 대다수가 다양한 진로를 희망하며, 시각장애 대학생의 진로와 취업지원 필요는 실제적이고 다양하나 대학당국은 학습지원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20].

이상의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주지할 수 있다. 첫째, 시각장애대학생이 안마사 이외의 직업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기도 하지만 대학진학에 대한 충분한 고민부재가 나타나고 있으며 설렘으로 시작한 대학생활이 현실에 부딪치면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것이다. 둘째, 대부분 초등학교때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아온 시각장애인들이 대학이라는 통합교육환경을 경험하면서 갖게 되는 당혹스러움은 우울과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는 성적부진 또는 학습미달을 초래하며, 휴학 및 자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안마사 이외의 직업에 높은 욕구를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학교는 취업 및 진로지도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2학년 진학을 앞두고 휴학을 고려하고 있는 1학년 시각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1)대학진학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입학 후 학교생활경험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 질문을 도출하였으며 심층면접을 통해 그 의미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차원에서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접근

본 연구는 대학에 진학한 시각장애학생의 1년간의 학교생활경험을 통해, 대학진학의 본질과 학교생활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질적 연구의 전통가운데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그 의미를 기술하고 인간의 경험에서 의식의 구조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는 방법이다. Van Manen(1994)은 경험이란 현상학적 연구의 출발이자 중착점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오직 경험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경험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곧 세계와 인간 존재 사이의 본래적이고 전반적인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체험의 본질적 구조를 밝혀내는 것으로[30],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 체험(lived experience)안에 내재하는 본질적 의미를 규명해내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질(essence)이란 그 어떤 '대 상들을 바로 그러그러한 의미를 지닌 대상들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것'이며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서는 이러한 본질적 의미들을 문장 혹은 절의 형 태로 기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본질적 의미들은 단순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없고 오직 풍부한 기술을 통하여 그 진정한 의미를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다[31].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서 심층적인 질적 면접은 경험자의 관점을 통해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진술(statement)의 형태로 표현한다. 즉 피면접자의 진술에 의존해 그들의 삶과 경험과 상황을 그들의 언어와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가 자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면서 만남을 지속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30].

서구에서는 최근 질적 조사가 양적조사논문과 균형을 이룰 필요성이 있음이 자주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질적 연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의미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개인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재료들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32]. 본 연구의 표집방법은 연구 목적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이를 만족시키는 사례를 포함하는 '기준표집' (criterion sampling)을 활용하였으며 참여자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으로 양안 시력의 합(교정시력)이 0.01 이하인 경우(1급)를 대상으로 하였다[37].

2. 연구 대상자 선정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목적적 표본추출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부산광역시 S 대학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 대학생으로 대학생활 1년이 경과하고, 휴학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학교생활의 여러 가지 경험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는 첫 대면부터 마지막 까지 연구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시각장애인 개인의 비밀과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료를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녹음기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한 뒤, 연구 참여 의사를 물었다. 면담 시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도를 다시 자세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및 녹음 동의를 받았다. 또한 연구결과를 개인에게 공지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녹음하였다. 면담 장소는 학교연구실에서 2-3회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총 3명으로 1급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며, 이는 양안 시력의 합(교정시력)이 0.01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표 1. 연구대상자

사 례	이름	연령	학력	시력	만남횟수 (시간)
A	상준	20	1년	1급	2회 (각1시간30분)
B	근호	19	1년	1급	3회 (각 2시간)
C	영준	20	1년	1급	3회 (각 2시간)

3.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18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문제는 관련문헌고찰 통해 이루어졌으며 크게 두 가지로 상정하였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대학진학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입학 후 대학생활에서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였는가? 이다. 질적 연구에서 너무 좁은 범위의 연구문제와 상세하고 세밀한 연구 질문은 이어질 과정에서의 변화들을 수용하기 어렵다. 조금은 포

판적이고 조금은 모호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연구문제나 질문을 변화시키지 않고도 연구를 마칠 수 있는 전략이다[31]. 또한, 심층면접의 사실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들과 수시로 추가 면담, 전화면담을 하여 결과에 반영하고 수정, 검토하였다. 면담횟수는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아 포화될 때 까지 최소 2회에서 3회 정도였으며 1회기의 평균 면담시간은 1시간 30분-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4. 자료 처리 및 분석과정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절차 중에서 Colaizzi (1978)의 방법을 활용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7단계를 적용하였다.

- 1단계: 자료의 전체적인 느낌을 얻기 위해 필사본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는다.
- 2단계: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 현상과 관련된 구 또는 문장으로부터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한다.
- 3단계: 의미 있는 진술에서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 진술한다.
- 4단계: 의미 있는 진술과 재 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를 이끌어 낸다.
- 5단계: 도출된 의미를 주제, 주제모음, 범주로 조직한다.
- 6단계: 주제를 관심 있는 현상과 관련시켜 명확한 진술로 최종적인 기술을 한다.
- 7단계: 연구 참여자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 본 연구에서도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3명의 참여자와 2차면담을 통해 연구자의 분석이 참여자가 전달하려고 했던 의미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member check).

IV. 인터뷰분석 결과 : 의미 있는 진술' 과 주제의 범주화

시각장애학생이 진술한 대학진학의 의미와 대학생활 적응과정과 관련한 유의미한 내용은 68개였으나, 본 연구에서 의미 있는 진술은 47개로 구성되었다. 이는 크

게 3개의 주제들로 범주화 되었다.

1.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 그 의미(범주 1)

1) 대학생활의 설렘과 “대학생”이라는 이름

시각장애학생들은 대학에 합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학생활이 즐거울 것이란 생각을 했고, 대학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또한 대학진학을 고등교육시대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으로 여기고 있었다.

(1) 대학생활의 기대와 설렘

* 캠퍼스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신체적인 장애를 커버하고 싶거나. 고졸보다는 대졸이 낫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A)

(2) “대학생” 이름의 힘

*대학에 간다고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인다거나 그런 건 있었어요(B)

*시각 장애지만 대학을 다닌다고 하면 장애이미지가 커버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변에서도 “아이고 잘 다니고 있나?” (웃음)하고요(B)

(3) 고등교육 시대 속의 선택

*저희 아버지가 남자는 대학을 나와야 사람구실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들어 장(각종 대표) 하려면 대학은 나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다들 대학을 가려고 하는 데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A).

*대학을 우선 나와야 나중에 기회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도 무시 받지 않으려면.. (B).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특히 저처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갖출 수 있는 것은 다 갖추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C).

2) 부모의 권유

자신이 적극적으로 대학과 전공을 탐색하고 결정하기 보다는 부모의 권유에 의해 대학진학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보통 '시각장애인학교'를 졸업하면 안마사라는 직종에 종사하게 되지만,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다른 직종의 직업을 갖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도 함께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안마사 이외의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자 여타의 다른 노력이나 학과 전공에 대한 뚜렷한 소신은 갖고 있지 않았다.

(1) 부모의 눈높이로 보는 대학진학

* 부모님은 저에게 학력수준, 취직, 대학을 가면 무언가 얻게 있을거라 하셨어요. 부모님이 현실을 잘 모르셨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대학이 중요했을 수도 있지만, 그 때(입학당시) 부모님을 설득하는데는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A)

(2) 부모의 대학진학열망의 실현

* 저는 무엇을 할지 잘 몰랐어요. 그냥 대학에 가면 무언가 달라질 거란 생각은 했어요. 엄마와 누나는 대학에 가면 지금보다 인간관계도 많고, 앞으로 취업하는데도 좋을거라 했어요.(B).

* 처음부터 생각은 없었던건 아니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대학에 간다고 주장한건 아니예요. 저 보다는 엄마가 더 원했죠. 상당히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C).

3) 안마사 말고 다른 무엇

대학을 진학한다는 것은 곧 안마사 이외의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대학 전공을 통해 적성에 맞는 다른 직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1) 안마사 직업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

* 안마사 말고 무언가 다른 일들을 하고 싶기도 했어요.(A)

* 인간관계 좀 넓혀 보고,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대학에 들어왔는데...(B)

* 대학에 진학하면 안마사 직업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C).

(2) 안마사가 아닌 진짜 내 꿈 찾기

* 저는 컴퓨터를 전공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맹학교 기숙사생활을 했지만 점점 더 안마사가 되는건 싫었어요, 컴퓨터에 대해 누군가에게 물어볼 사람이 주위에 없었어요.. 나중에 유학도 가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우선 대학에 진학하는게 좋을 것 같았어요.(c).

* 대학에 가서 다른 전공을 하면 거기에 취업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잘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고 그런 것을 기대했죠. 안마사는 요즘 다들 가기 싫어하죠.(A).

2. 대학생활적응과 현실 (범주 2)

1) 누구나 들어가는 곳 인가? 특별한 곳인가?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대학진학 문턱이 상당히 낮아진 현 상황에서 대학합격을 기뻐하기 보다는, 자신이 대학을 선택 했기에 합격은 당연한 결과라고 여기고 있었다. 오히려, 대학을 진학한다는 것은 바로 안마사로 취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생이 되는 설렘은 있지만 그에 반해 대학합격의 감격은 크지 않았으며, 대학진학을 통해 안마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할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고교졸업 후 바로 안마사 직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다는 양가감정을 갖고 있었다.

(1) 진학의 낮은 문턱

*특별전형은 생각보다 들어오는게 너무 쉬어서...그리고 성적도 잘 안보는 것 같고, 그래서 별 느낌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막 어렵게 들어온건 아니기 때문예요. (A)

* 시각장애인들 안에서도 대학에 간다고 특별이 인식이 바뀌고 그런건 아닌 것 같아요, 대학을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예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벌어서 가면 되니까요. 저는 아니지만 친구들보면 안마로 한달에 300만원 벌 수 있으니까요. (A)

(2) 특별한 곳, 대학

* 모두 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학 들어가면(진학 했다고 하면) 뭔가 달라보이기 때문에 특별

한 곳이죠 (A).

* 처음에는 분위기에 끌려가기도 하고 고등학교때 그때, 심리적으로 분위기를 많이 따라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뭔가 좋아보이는...(B)* 뭔가 채울 수 있으리라 기대했어요. 궁금한 것도 많고.. 자유로와 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어요(B).

1) 대중 속의 고독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는 다른 장애와 달리, 시각장애는 장애의 특성상 “시각장애특수학교” 진학이 상당수인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시각장애학생들은 실제적인 통합교육을 처음 경험 하고 있었다. 더불어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치곤 했다. 입학 전의 캠퍼스 생활의 막연한 기대와 달리, 다수의 비 장애학생 속에서 시각장애학생들은 그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소외감과 무관심을 경험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서 친구사귀기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는데, 대학입학 전의 적극적으로 캠퍼스 생활을 누려보겠다는 본의의 의지와 달리 시각장애의 장애특성으로 먼저 다가가 말을 걸 수 없는 현실과 낯선 환경이 주는 소외감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입학 후 후회하기도 하였다.

(1) 무관심한 존재인가

* 통합은 처음인거죠 계속 맹학교를 다니다가 와서, 내가 너무 무관심한 존재가 된건 아닌가는. 조금 소외감 같은. 아무래도 뭐라 그래야 하나. , 학과에 여자들도 많고 오히려 말할 기회가 없고, (시각장애여성)개인적으로 대학동기들이랑 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A)

* 대학을 온 것을 후회한 적은 있어요 조금요 제일 처음 들어서 분위기 자체가 너무 틀리고 적응하는것도 그렇고, 맹학교 분위기는 아무래도 인원이 소수고, 나중에 고등부 되면 인원이 늘긴해도...사람들이 너무 많은 환경에 있다보니까 당황스럽고 (A)

(2) 친구사귀기

* 처음에는 대학들어 올 때, MT 이런거 꼬박꼬박 참석

하고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정보도 많이(주고 받고), 그런데 그게 들어오니까 안되더라구요 처음에 OT 한번 갔다가, 다들 공연보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다음부터는 MT 같은건 않가는데...(B)

* 저는 적극적으로 대학생활을 할 줄 알았어요 대학에 들어와서 성격 같은 것도 좀 더 활발하게 친구도 사귀고, 근데 그게 잘 안되서요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학과 친구들도 다 일반인이고, 그리고 옆에 누가 있는지도 말 시키지 않으면 잘 몰라요. 말 걸기가 좀 그랬어요 같은 학년인지, 선배인지. (B)

* 한번은 하루종일 얘기 안하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무턱대고 사탕한봉지를 들고 “떡을사람?” 했어요 그 때 아이들이 우르르 제 앞으로 왔고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 때 처음 말해 본 것 같아요(C).

2) 모든 것이 장애물

대학입학 후 시각장애학생들은 맹학교에서의 편의시설과 너무나 다른 대학환경에 당황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을 상기했다. 홈페이지 음성지원 서비스의 미 지원으로 전공관련 공지사항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 등을 포함하여 강의실 찾기, 행정부서 찾기 등의 어려움 속에서 주말에도 기숙사에 머물며 외출을 할 수 없었다. 과거 특수학교에서의 기숙사 생활 전반과 비교적 원만했던 정보적, 물리적 환경을 비추어 볼 때, 대학입학 후의 적응과정은 시각장애로 인한 낯선환경 경험+ 편의시설 미 지원에 따른 고립을 뜻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1) 정보적 장애물

* 홈페이지가 바뀌기 전에는 접근이 되는데, 바뀌면 버튼 이런것도 접근이 안되고 음성지원이 안되고 홈페이지에 접근이 안되니까 정보를 잘 알 수 없었어요. (A)

* 제일 시급한게 수업을 듣다보니까 교재요 수강신청할 때 학기에 분명히 저희 먼저 한다고 했었는데 안되더라구요 그게. 그래서 당일날 신청하고(B)

* 공지를 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없는 부분이 허다했고 도우미 학생에게 물어보거나, 먼저 얘기해 주면 그때서 아는 경우가 많았어요(C).

(2) 물리적 장애물

*처음에 대학 길을 알아두는 것이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학생과 찾아가는데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학과사무실에 이야기 하면 잘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찾아가기도 했어요. (A)

* 기숙사 찾아가는 것도 애를 먹었구요.. 주말같은 때도 그냥 기숙사에 있어요. 가는 곳은 행정실, 강의실, 매점... 그 정도는 익혔어요.

* 화장실 같은데 점자 안붙어 있죠? 남자 화장실. 그래서 한번 일보고 있는데..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 해서.. 밖에 여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못 나오고 다 갈 때 까지 기다리고 있는데...(B)

*5층 엘리베이터 점자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꾸로 붙어있더라고요.(B)

3)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업의 당황스러움

시각장애학생들은 시각장애특수학교 재학 시의 수업 내용과 비교해볼 때, 대학수업의 진행방법부터 진도, 내용에 이르기까지 상이하게 다른 수업방식으로 인해 어리둥절함과 난감함 그리고 무력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입학 전의 막연한 기대와 달리 대학수업의 어색함과 당혹스러움은 계속해서 재학을 해야 할 지에 대한 회의와 함께 결국 대학진학을 통해 안마사의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을 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사라지기도 했다.

(1) 낯선 수업방식

. 수업 방식부터 차이가 났어요. 대학 수업은 쪽 읽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범위가 비교도 안 될 만큼 많고요.. 안마사가 내 인생이 구나 하는 부분도 있고, 학업이 어려웠어요.(A)

* 이런 수업은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좀 힘들다고 해야 하나.. 한 동안은(대학수업 끝나고) 맹학교를 계속 갔어요. 가서 선생님들한테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B).

* 저희는 어릴 적부터 실기 위주의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짝 긴

장했죠. 맹학교 다닐 때는 서로서로 얘기도 하는데.. 분위기를 정말 모르겠더라고요.(C).

(2) 시각장애특수학교와 다른 수업 난이도

*대학에 들어와서 “이게 뭐지?” 내가 이 과를 들어와서 온 건가? 어쩔까? 그래서 솔직히 수업시간에 너는(교수) 떠들어라. 그런식이었어요.. 어차피 처음 듣는 얘기들이어서. (B)

* 수업 따라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걸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좀 잘 헤쳐나가자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특히 1학년때 교수님께서 영어로 수업을 하시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옆친데 달친격이라고 (B)

* 수업은 당연히 못 따라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쓰는 용어 자체가 많이 달랐어요. 이렇게 비장애인들이 많은 곳에 있어 본 적도 없고, 집단과제도 많고 조별로 모여서 얘기하는 시간들도 있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C).

3. 입학 1년 후: 대학재학의 의미(범주 3)

1) 포기한건 아니지만 여전히 애매한 시간 속으로

시각장애대학생들은 입학전과 달리 대학생이라는 자부심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였다. 다만, 부모님과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재학 중이며, 2학년을 앞두고 많은 부분 의욕이 사라져 있었다. 이로 인해, 계속 재학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부모와의 마찰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또한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퇴를 생각하기도 했지만, 자퇴 후의 계획이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애매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1) 아직까지 낯선 생활과 시간들

* 내가 장애인이지만 나는 대학생이다. 라는 자부심은 이제는 별로요. 예전에 장애인들에게는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자부심을 느끼는건 아니고 아무튼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A)

* 처음에 대학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10년 이상 같은 학교 생활하다가 대학에 오니까 낯설잖아요. 그러다 보

니가 부모님과 갈등도 많았어요 (부모님이) 니가 그렇게 고생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참아라(B).

(2) 애매한 시간들

* 1학기때 힘들어서 그만 둔다고 할 때, 딱히 그 후에 어떻게 할지 해결책이 없었어요 사실 그냥 하다가 여기까지 온건데...그냥 버틴거죠 그 감정을 표현하기 참 애매해요 아예 포기한건 아니고(B).

* 열심히 해야 겠죠 그런데 쫓 답답은해요 그래서 휴학신청을 한 거구요 1년 동안 생활을 해 보니까 과연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시간만 가면 그건 차라리 안들어온게 낫지 않는가 생각도 들고요 (C).

2) 또 다시 갈등 시작

시각장애대학생들은 휴학 고민과 동시에 안마사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휴학선택의 갈등 및 결정은 직업으로서의 안마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관한 진로고민과 맞물려 있었다.

(1) 결국 안마사 인가

* (고등학교 졸업 친구들이)유홍업소 안마를 많이 가게 되는데,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그런 곳이 많은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은데(생략), 처음 1학년이 되었을 때 꿈이 안마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학다니면서 다시) 안마사로 바뀌었어요 (A)

* 친구들 이랑 선배들 보면 답답하다 해도 돈을 버니까 볼 때 마다 나도 해야하는지 생각도 되고.. 이렇게 다니는게 맞는지 생각되다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B)

요즘 생각해요 선배들 보면 휴학하고 다들 안마사 하고 있기도 하고, 몇 년 지나서 보면 안마한다고 하기도 하고요(C)

(2) 휴학의 기로에 서다

* 한 동안 휴학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히 1학년 1학기 때요 많이 아팠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서요 좌절을 버텨야 하는데...(A)

* 지금도 휴학을 해야 하는지 자퇴를 해야 하는지 버텨야 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B)

* 휴학을 하고 싶어요 우선, 쫓 쉬고 싶은 마음에 신청했어요 (C).

3) 대학재학의 의미: 미래투자

시각장애학생들에게 대학재학의 의미는 곧 대학졸업의 의미와 일맥상통하고 있었다. 현실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훗날 4년제를 비장애인 들 틈에서 함께 공부하고 졸업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는 결국 2학년 진학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시각장애학생들이 인지하는 대학생 생활 적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진술로서, 대학생 생활 적응의 의미를 현재의 생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미래의 투자의 개념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1) 대학재학은 졸업을 위한 과정

* 대학을 다녀서 아무래도 도움이 되었다? 대학 4년제가 제게는 그래도 .. 장애인들 틈에서 쉬어서 교육을 받았다 정도요 (A)

* 대학을 다녀야 우선 졸업이 되죠 고등학교 나온거보다 대학교를 나왔다는게 장애인의 차별을 덜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B)

(2)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 투자

* 나중에 제가 무슨 장애인 단체에 간부를 맡게 된다면 (4년제 대학), 나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그런 쪽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해요(A)

* 잘 해야죠 누나가 잘 할 수 있을거라 격려해요 대단하다고요 분명히 할 수 있을거라 말해요 미래를 위해 해보라고요 나중에 다 잘될거라고요(C).

V. 논 의

시각장애는 다른 장애와 달리 어려움이 더욱 수반되는 중증장애이기 때문에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러한 관점에서 비교적 최근에 시각장애대학생의 학교 생활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출현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대학 1학년의 시각장애학생이 경험하는 대학생활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대학입학의 본질과 입학 후 1년간의 학교생활 적응 경험을 통해 인지된 대학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장애학생에게 대학의 첫 이미지라 할 수 있는 신입생 시기부터 대학 생활 전반을 타진해 볼 수 있는 1학년의 생활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이에 중점을 둔 장애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였다.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는 장애의 특성상 물리적, 정서적 적응의 정도가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휴학을 고려하고 있는 1학년의 학교생활 경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상정하였다.

현상학적 접근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주제를 통해 세상과 타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연구들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인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대학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진학을 앞둔 시각장애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진학의 의미와 학교생활적응의 경험'의 의미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의미 있는 진술은 47개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3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사실을 주지 할 수 있다.

첫째, 입학 전 대학에 진학한다는 의미로서(범주 1), 시각장애대학생은 대학생이라는 명칭이 주는 이미지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적극적으로 대학과 전공을 탐색하고 결정하기 보다는 부모의 권유에 의해 대학진학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 혹은 계획은 다소 막연하였다. 이는 시각장애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 초기에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막상 현실적인 적응 앞에서는 힘겨움 직면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조현근(201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1]. 따라서 입학 전부터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보제공이 대학차원과 특수학교 차원의

연계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대학은 의무기구인 「특별지원위원회」와「장애학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유형에 적합한 신입생 관리 지도의 필요성과 실행방안 등을 내부규정에 포함하고, 입학처와 연계하여 입학 전부터, 입학을 희망하는 시각장애학생에게 대학에서 전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즉, 질이 보장되는 대학교육의 제공을 위해서는 특례 입학전형에서 실제로 대학교육의 취지와 특례입학의 본질을 잘 살릴 수 있는 안내와 정보, 제도정비 등이 필요하다. 앞서, 박홍식(2006)은 시각장애특수학교의 졸업생의 과반수 이상이 대학진학 등 이료교육(안마사 양성교육) 이외의 분야에 대한 진로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고한바 있다[22]. 그 만큼 대학진학의 욕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입학 전 대학진학을 충분히 숙고해야 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정보지원이 대학과 특수학교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대학진학이 단순히 대학생이라는 이름의 후광 효과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삶의 계획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인식이 시각장애인학생 당사자에게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과전공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고등교육시대 속에서 특별한 계획 없이 대학에 진학한다면 적응의 현실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난감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김미선 외(2014) 역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시각장애인의 대학진학의 증가 이유 중 주요이유는 고학력중심의 사회페러다임의 변화로 정서상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고등교육의 보편화 현상으로 대다수의 학생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학력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20]. 본 연구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그대로 반영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은 대학을 진학하는데 있어 전혀 어려움이 없었으며, 원하면 갈 수 있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특례입학의 기준이 좀 더 다듬어질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는 결국, 시각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지키고, 대학 본연의 특례입학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된다.

둘째, 대학생활 적응과 현실에서(범주 2), 대학입학 전에 기대했던 캠퍼스 생활의 기대와 선택과 달리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소외감과 무관심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시각장애의 장애특성으로 먼저 다가가 말을 걸 수 없는 현실과 낯선 환경이 주는 소외감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입학 후 후회하기도 하였다. 특히 시각장애대학생이 적응하는 내적 갈등과 정서적 어려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김미선(2012), 박중휘(2010)가 지적한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20][37]. 또한 본 연구에서 대학입학 후의 적응과정은 시각장애로 인한 낯선 환경 경험+편의시설 미 지원에 따른 고통을 뜻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수업방식부터 수업내용, 교재의 부재 등으로 대학졸업 후 안마사의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을 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사라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미선 외(2014)는 대학을 진학할 때, 시각장애학생들은 안마사 외에 ‘보다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함이었다고, 대학 진학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적성개발을 원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0].

이러한 의미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새로운 지식습득을 위한 과정의 안내자로서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대학생의 수업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김동일·손지영(2009)에서 밝히고 있는 바로서, 장애학생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절한 수업 조정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수업현장에서 학생들은 더욱 불안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써 대학교육 환경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고 효과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지적과 맥락을 같이한다[35]. 또한 대학입학 전 단계부터 실제로 시각장애학생이 전공을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식과 취업 등의 오리엔테이션이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보다 넓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각장애학생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의 진학, 진로, 취업 등의 지원을 확장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입학 1년 후 대학에 재학한다는 것의 의미로서(범주 3), 본 연구에서 시각장애학생들은 많은 부분의 욕이 사라졌고 휴학, 또는 자퇴를 염두에 두기도 하였

다. 또는 다시 진로를 안마사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관해 고민하고 있었다. 대학진학의 의미 역시 대학졸업 자체의 의미로 바뀌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최지영(2009)은 휴학이나 자퇴 등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불안과 우울을 경험한다고 밝힌 바 있다[17]. 주목할 점은 대학진학의 의미가 안마업 이외의 또 다른 직업을 갖을 수 있다는 희망과 대학생이라는 이미지의 상승효과, 대학생활의 선택 등으로 인지되고 있었으나 결국, 1년 뒤 대학진학의 의미는 졸업 그 자체의 목적으로 이행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졸업이라는 의미는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로 하는 의미가 아닌, 대학졸업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이에 따르는 대학졸업의 후광효과 정도의 개념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에게 고등교육 본연의 취지는 도움을 받아오던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리더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영위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사회통합의 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36], 본 연구에서 시각장애대학생들이 기대했던 대학생활경험은 그 의의를 살리기 어려운 기로에서 있었다. 이는 곧, 대학이 고등교육 본연의 의의를 살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각장애특성에 적합한 학교생활전반의 제반 환경과 심리적·내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사료되었다. 특히, 국가로부터 유보직종으로 지정받아 보호 받고 있는 안마업을 포기하고 대학에 진학한 시각장애인의 욕구에 주목해야 한다. 시각장애대학생을 지원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에 기초한 지원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즉,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는 곧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그 욕구를 파악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실제로 시각장애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지원할 수 있다, 없다”의 관점은 어떠한 지원이 시각장애학생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방식이 된다. 즉, 시각장애대학생을 지원한다는 것은 장애학생지원의 보편적인 틀 속에서,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학생이 말하는 적응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어떻게 공유하고 개선

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이 시각장애학생에게 제공해야 할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은 시각장애인의 입학 전에 전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고등학교 재학 중에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 역시 대학 입학전에 대학진학의 이유와 전공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소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시각장애특수학교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거나, 혹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적성을 찾을 수 있는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각장애특수학교-대학 간의 연결체계가 구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가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교육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입학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연구 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물리적 환경의 당혹스러운 친구관계 등의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고립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시각장애는 장애의 특성상 물리적 환경이 적응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학교는 교육자료, 학습제공, 물리적 공간 등의 실제 환경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즉,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구체적 범위를 입학 전에 개인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은 시각장애학생의 전공이해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업부진 등의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시각장애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아 실제적으로 비장애인과의 통합교육환경은 처음이었다. 비장애학생들과의 통합교육 유무에 따라 불안, 우울, 학교생활적응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은[40], 본 연구 결과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휴학결심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은 현재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학습관련 지도계획 시스템을 운용하고 학점 관리 등의 보다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한다면 부분적으로나

마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넷째, 앞으로 대학은 시각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이의에도 취업과 진로지도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직종은 유보직종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주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안마사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갖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22][28].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대학은 시각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을 하고, 전공교육과정이 실제로 취업과 연계 될 수 있도록 특성화된 취업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 외에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대학은 시각장애인의 대학 입학의 기회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고등교육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대학 내의 인적·물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졸업 후 취업과 연계 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대학의 지원은 시각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전반의 적응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고등교육의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초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휴학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했기에 대학생활의 긍정적 적응과정 보다는 적응의 어려움이 부각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대학생이 입학 전에 갖는 대학진학의 의미와 1년간의 실제 대학생활 경험을 통해 대학진학 전의 전공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에 따르는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의 특성상 환경과의 적응에 있어서 다른 장애와는 다른 어려움과 제한점들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대학 차원의 환경정비 및 교육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기 위한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대학이 휴학이나 자퇴를 고려하고 있는 시각장애대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 [1] 이종남, “장애대학생의 대학 생활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 충북K대학교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 제50집, pp.2-23, 2016.
- [2] 교육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교육부, 2015.
- [3] 조현근, “중도 시각장애 학생의 대학생활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1권, 제3호, pp.209-226, 2016.
-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29.) (법률 제12365호, 2014.1.28., 일부개정)
- [5]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시행2013.12.30.) (법률 제12127호, 2013.12.30., 일부개정)
- [6] 김동일, 김경선, 김우리아, 이기정, “장애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적응을 위한 통합 예비대학 프로그램 개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연구, 제52권, 제2호, pp.359-384, 2013.
- [7] 박미화, “장애대학생의 가족지지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구 중북·지체부자유아교육), 제58권, 제4호, pp.147-168, 2015.
- [8] 김경화,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4년제 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청각장애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6권, 제3호, pp.187-202, 2015.
- [9] 김동일, 고혜정, 정소라, 김주선,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에서의 리질리언트한 통합과정,”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51권, 제4호, pp.295-318, 2012.
- [10] 이지경, 안성우, “장애학생의 대학생활 및 수업에 관한 실태와 성별에 따른 인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5권, 제2호, pp.259-284, 2014.
- [11] 조현근, “근거이론 접근에 의한 시각장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과정,” 시각장애연구, 제32권, 제3호, pp.1-33, 2016.
- [12] 이해균, “시각장애학생의 학사지원에 대한 정안대학생의 의식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6권, 제1호, pp.1-18, 2005.
- [13] 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장애 대학생 학업 성취 실태 및 대학생활 욕구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제37권, 제4호, pp.335-357, 2003.
- [14] 정정진,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및 학습권 보장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3.
- [15] 이옥경, “장애 대학생의 진로지도와 취업준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23권, 제1호, pp.169-195, 2004.
- [16] 권현용, 김현미, “장애대학생의 자기개념과 우울 및 불안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제7권, 제2호, pp.43-56, 2004.
- [17] 장순옥, “장애인 특례입학 대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관한 연구 - 지체장애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제5권, 제1호, pp.85-108, 2001.
- [18] 최지영,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제10권, 제4호, pp.2571-2589, 2009.
- [19] E. L. Paul and E. H. Wong, “A pilot project on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and selfconce pt,” Psychological Reports, Vol.77. No.1, pp.255-258, 1995.
- [20] 김미선, “시각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인식과 요구: 교육권 그 너머,” 시각장애연구, 제28권, 제4호, pp.97-117, 2014.
- [21] 김호연, “시각장애 대학생의 학과 선택 및 진로 준비에 관한 조사 연구,” 시각장애연구, 제29권, 제1호, pp.1-23, 2013.
- [22] 박영준, “시각장애 안마사의 고용확대 방안에 관한 인식비교 연구,” 장애인 고등 교육 연구, 제2권, 제1호, pp.153-168, 2016.
- [23] 유훈, 김계현, “장애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장애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제16권, 제5호, pp.157-170, 2015.
- [24] 김미선, 박중휘, “시각장애 대학생의 대학 내 교

육복지 지원 경험과 인식,” 시각장애연구, 제29권, 제2호, pp.1-22, 2013.

[25] 김태형, 임진섭, “시각장애대학생의 역량강화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접근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시각장애연구, 제27권, 제2호, pp.19-40, 2011

[26] 서혜란, 강은영, “시각장애대학생을 위한 대체자료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6권, 제4호, pp.5-30, 2015.

[27] 권형용, 김현미, “장애대학생의 자기개념과 우울 및 불안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제7권, 제2호, pp.34-56, 2004.

[28] 한국장애인개발원,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장애인개발원, 2009.

[29] 김미선, 박중휘, “대학에서의 학업지원에 대한 시각장애 대학생의 인식과 요구,” 시각장애연구, 제26권, 제1호, pp.25-41, 2010.

[30] M. van Manen,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th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Canada,” 1990, 신경림, 안규남 공역, “체험연구,” 『동녘』, 1994.

[31] 정상원, 김영천, “질적 연구에서의 현상학적 글쓰기의 전략과 방법의 탐구,” 교육문화연구, 제20권, 제3호, pp.5-42, 2014.

[32] L. E. Lindstrom, *Patterns of career development: case studies of young women with disabilities entering the workforce*, P 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Oregon, 2000.

[33] 오윤진, 이순민, “시각장애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의 관계연구 :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연구, 제29권, 제2호, pp.45-66, 2013.

[34] 김동일, 손지영, “장애대학생 수업 지원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과 지원방안,” 특수교육저널:이론과실천, 제10권, 제1호, pp.85-112, 2009.

[35] 김동일, 이태수, 김익수, 김혜영, 박유정, “장애인 고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애와

고용, 제14권, 제2호, pp.5-24, 2004.

[36] 김미선, 박중휘, “시각장애 대학생의 진로와 취업 지원 경험과 인식,” 시각장애연구, 제30권, 제4호, pp.213-232, 2013.

[37]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5.9.12.) (법률 제 13216호, 2015.3.11., 타법개정)

[38] 이해경, *여성 정신장애인의 모성경험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39] 유영주, “문화복지서비스 성과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비스 이용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4권, 제3호, pp.271-300, 2013.

[40] 김자경, 강혜진, “통합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대학생의 불안, 우울과 대학생활적응비교,” 중복복지체부자유연구, 제51권, 제2호, pp.211-225, 2008.

저 자 소 개

최 선 경(Sun-Kyoung Choi)

정회원



- 2001년 7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05년 3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 사례관리